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전도제자

디모데전서 6:3-16

최정웅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대학청년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 끝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끝난다. 젊은 날은 꿈을 꾸는 시간이다. 대단히 중요한 나이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다.

서론

(1) 예수님의 인생관이 어땠는지를 보자. 요한복음 8:29에, 나는 누구인가를 말씀하셨다.

- 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다.”
- ②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여러분 때는 잘 모른다. 친구가 없다면 외로울 것이다. 내 나이가 되니까 친구 없는 것이 제일 어렵다.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때가 온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혼자 있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굉장한 주님의 인생관이다.
- ③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주님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세 가지가 주님의 인생관이었다. 우리의 믿음에 이게 있어야 한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진 분이 있으면, 거기부터가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지금부터 올라가면 된다.

(2) 주님이 이 땅에서 세 가지를 하셨다.

- ① 설교하셨다(preaching).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다.
- ② 가르치셨다(teaching).
- ③ 그리고 봉사하셨다(healing).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다. 우리도 이것을 따라하면 된다.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표다. 기회만 나면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봉사다. 청년들이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살면 된다.

(3) 여러분의 시기가 있지 않나? 대학청년의 시기다. 여러분 시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다.

- ① 여러분이 어른이다. 성년이 된 것이다. 유대인 식으로 따지면 중년인지도 모른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13세에 하니깐. 조선시대 때도 그랬다. 어리광을 부릴 생각은 하지 마라. 성년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책임이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말이다.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시기가 되었다. 나이 30이 되어도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지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년이 안 된 것이다.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시기다.
- ② 10대 때 가졌던 꿈, 비전이, 현실과 부딪히는 시기다. 간단하지 않구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들게 된다. 나도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갈 때는 목사가 다 시시해 보였다. 저렇게밖에 못 하나, 내가 목사가 되면 완전히 잘 할 것 같다 싶었는데, 졸업반이 되어서 보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보이더라. (웃음) 이런 것을 경험하는 시기다. 잘 안 될 것이다. 그런 시기에 당면한 것이다.
- ③ 객관화의 시기를 겪는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좌절을 체험하는 시기다. 대학만 잘 나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공부만 잘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닌 것이다. 그런 좌절이 온다. 직장 가 보면 숨쉬기도 힘들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
- ④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 시기가말로 가장 힘이 있는 시기다.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다. 나도 돌아볼 때 그랬다. 가장 힘들고 아름다웠던 시절이었다. 아무리 뛰어도 한 숨 자고 나면 새 힘이 솟는 시절이었다. 세수만 하고 와도 아름답지 않다. 그런 시절이 여러분 때다.
- ⑤ 그래서 만약 이 시기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애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요셉이었다. 이것을 요셉이 겪은 것이다. 아버지에게서 들은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노예를 살아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되어도 괜찮은 사람이 된 것이다. 내 꿈은 여기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3학년까지를 하고, 4학년부터는 덕평에 모아

서 초등학교 과정을 지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외국에 가든지 국내에 가든지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다. 진짜 복음의 사람을 만들고 싶다 생각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지금도 좀 안타깝다. 여러분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1. 하나님이 주신 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처럼 그것을 찾아야 한다.

(1) 내가 보니까, 복음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이 쓰신다. 정말 풍성하게 복음을 깨닫게 되면, 여기에서 인생이 다 결정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여러분이 꼭 승리하시기 바란다. 복음으로 풍성하게 되시기 바란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목사님들의 말을 잘 듣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복음이 내 것이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 ① 그러려면 복음을 정리를 잘 해야 한다.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내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정말 내 것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
- ② 그리고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까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이게 안 되면 불신자와 똑같다. 우리교회에 있는 동안, 진짜 복음을 제대로 들어라.
- ③ 그러면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일, 사건,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류광수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된 것이다.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했지 않다. 어제 장인성 목사님이 나를 보고 이야기했다. 모든 분야를 복음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저런 목사가 없어요’ 하면서 그러더라. 나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산업선교 가면 알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복음으로 저렇게 모든 것을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다. 삶, 직장,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것은 아직 복음을 못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모든 것의 나침반으로 삼아라. 그러면 어디를 가도 괜찮다. 무엇을 해도 승리한다.

(2) 복음이 지식을 넘어서 체험으로 가야 한다. 체험이 되어야 감사가 나온다. 내 삶에서, 경제에 있어서, 학업에 있어서, 사건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가정과 삶의 모든 곳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하고 체험되어야 한다. 한 가지만 체험되어도 된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한 가지 체험만 있어도, 거기에서 시작되어서 서서히 요셉처럼 체험하게 된다. 그것을 가지고 일생을 승리하면서 살게 된다. 복음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한다.

(3)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2가지 문제가 가는 곳마다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12가지 문제가 여러분을 얹어매지 못하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램뉘트 가는 길에 길이 열린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한 사람만 나와도 된다. 여러 사람이 다 필요한 게 아니다.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을 살렸다. 한 사람만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교회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만큼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12가지 문제가 뭔지 아시는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조용히 물어보더라. 도대체 12가지 문제가 뭐요 하고 (웃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속 점술 우상이 문화화된 것,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를 합친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냥 12가지라고 하니까 몰라서 헤맸다고 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나다. 그런 관이 분명해야 한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엄마들이 말 조심을 해야 한다. 소중한 사람이다. 보배로운 사람이다 해 줘야 하는데, 아이고 이웃집 아무개는 잘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집의 종이 될 뿐이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세상이 다 안 믿어도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해 주면 그 때가 왔을 때에 어머니가 생각나니까 무너지지 않게 된다. 왜 자기도 못 하는 것을 두고 율법으로 하는가. 복음으로 하지 않고 욕을 하더라도 ‘이 잘 될 놈야’ 하고 해야 한다. (웃음) 욕을 하면 그대로 된다. 나는 공산군이 사람을 죽여서 바다에 던져 버려서, 시체가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다. 말하는 대로 된다. 희망을 주어야 한다.

2.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교회관이 분명해야 한다. 내가 좀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돌아보니까, 뿌리를 내린 청년이 없었다. 청년들이 집사, 장로가 되어야 하는데 다 어디 도망가고 없다. 가더라도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흠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을 목사님께 부탁한 이유가 있다. 말은 분들은 생을 걸고 살려야 한다. 여기에서 말은 것을 성공시키면 일생에 성공하게 된다. 여기에서 제대로 못 하면 어디를 가서 될 해도 안 되게 되어 있다.

(1) 대체로 신자들이 정체성을 못 찾더라. 교회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이다. 하도 화가 나서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들이 있었다면 이랬겠다, 내가 이 교회 청년 이면 그럴 수 있겠느냐, 교회 장로 집사는 다 죽었느냐.” 교회 건축할 때 반대하는 자들이 내 욕을 하는 것을 부지에 붙여놓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걸 뗄 생각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얼굴이 벌개져서 이야기했더니, 자고 다음날 보니까 없어졌다. 그동안 몰랐다. 어제 알았다. 우리 사위가 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웃음)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하나 싶다. (웃음) 내가 아들이었으면, 내가 청년이었으면 안 그랬다. 무슨 소리냐 하고 잘라 버리면 그만인데. 불법인데. 그것을 잘라내면 되는데 ‘어, 욕 잘 한다’ 하고 보고만 있으면 되겠다.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에 잘랐다고 한다. 자기가 한 대로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램넛다. 뭐가 그리 겁나는가. 우리는 진도제자다. 정체성을 딱 가져야 한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자녀다. 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참사랑교회 다니는 청년은 그래야 한다. 여러분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이게 없으면 죽은 자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2) 성경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진 청년이 되라. 그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리고 기도하는 청년이 되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4:5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진다고 했다. 이것 아니면 경건생활이 안 되는 것이다. 자녀가 학교를 갈 때는 끌어안고 기도해 줘라. 천사를 보내서 지켜 달라고 기도해 줘라. 그 기도가 계속 담기면 아이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 경건을 훈련해야 한다. 이 경건의 훈련은 무엇을 통해서 되는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산다. 예배 놓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지 않는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 예배를 생생같이 지켜야 한다. 옛날 이야기다. 아이가 혼자 예배를 가니까 못 가게 하려고, 불신자 부모가 밭의 무명을 다 뽑으라고 했다. 그런데 아이가 밤에 가서 다 뽑은 것이다. 내일 교회 가려고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다 해 놓고 예배당을 간 것이다. 처음에는 모르고 ‘너 왜 안 하고 갔냐’ 했더니, ‘다 해 놓았다는’ 것이다. 피 안 묻은 곳이 없이 다 뽑아놓았다. 아버지가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한다. 가문을 살리게 되었다. 여러분, 신앙은 생명으로 지켜야 한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로컬체치와 퍼라체치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란다. 대학청년들이 일생을 바로 살 마음이 있다면, 평생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지킴시다 결단하라. 그것 하나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사업을 보장하신다. 예배를 들으면 한도 끝도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관을 가져야 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나의 집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나는 여기에서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은혜의 젖줄이 이곳이다.

(3) 이 엄청난 명령, 미션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영적 피수꾼이 되고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떠나지 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섬기던 교회,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던 교회를 내가 섬기면서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다 하고 결단하라.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팔도에서 모여와서 살다 보니 사람들에게 고향이 없다. 마음의 고향, 신앙의 고향, 복음의 고향이 참사랑교회구나. 그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도록 되어야 한다. 이것을 놓치니까 고아처럼 산다. 믿음의 선배들이, 김근숙 권사님이, 복을 치면서, 예수 믿어야 이 가난에서 해방된다 하고 진도해서 시작한 교회다. 가난의 귀신을 무너뜨려 버려라. 천막 치고 시작한 교회다. 여기에서 이제는 세계 살릴 제자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그 그림을 그리고, 교회에 뿌리를 내려라. 마음의 고향으로 삼아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한다.

3. 하나님이 주신 현장

청년들은 이 현장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다. 삶의 자리다.

(1) 여러분은 어디를 가기 이전에, 지금 내가 있는 이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지금 이 자리,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이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인생을 살면서 흔적이 있어야지, 나그네처럼 왔다갔다 근거도 남기지 않고 가면 안 된다. 여기에 있는 동안 교회에 기억되는 청년이 되시기 바란다.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청년이 되기를 바란다. 언제 왔다가 언제 갔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똑같다.

① 지금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다. 여기에서 당연히 할 것을 해야 한다. 거기에서 뛰든지 제대로 하면 된다. 우리 장로님들은 어디가 약한지를

보고 거기에 가서 살아야 한다. 짜장면만 사 줘도 부흥될 것이다. 짜장면과 함께 복음을 먹어 봐라. 역사가 안 일어나겠는가. 인사 안 한다는 소리나 하는데, 짜장면 한 번 안 사줬으니 누군지 어떻게 알고 인사를 하나. 쉬운 것이다.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군 복무할 때다. 휴가를 2주 나왔더니, 동생들이 학비가 없다고 했다. 1주일 동안 가서 막노동을 해서 학비를 만들어주고 왔다. 교회에 갔더니 피아노가 없었다. 염전에 가서 열흘을 일했다. 휴가와서 그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피아노가 생겼다. 뭘 못 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다른 것을 다 책임져 주시지 않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해 주시지 않나. 있는지 없는지, ‘아, 이것들이 안 하네’ 하고 욕이나 하고 흥이나 보면 안 되는 것이다. 어렵지 않다. 쉽다.

② 필요한 곳을 보면 된다. 필요한 곳에 응답하면 된다. 보면 다 보이지 않나. 교회 화장실을 불평하지 말고, 내가 토요일날 가서 청소해 놓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다 감동이 된다.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을 우리 모두가 찾아나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없애는 사람이다. 해결하는 사람이다. 없는 문제도 자꾸 만들어내서 자꾸 말하면서 할 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필요한 것을 찾아라.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약간만 도와주면 사람들이 다르게 보게 되어 있다. 문제가 안 된다. 불평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삶이 어렵지 않다.

③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 공부를 통해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절대적인 것이 된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 요셉에게 총리 자리가 온 것이다.

(2) 이 현장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시류따라 바람따라 물결따라 가면 그것과 함께 망한다.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

(3)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일심, 전심, 지속하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된다. 하루만 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벤자민 프랭클린의 일화가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였다. 무슨 일이든지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시킬 일이 없으니 가라고 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땀가를 줌는 것이다. 땀 하나 했더니, 편이 하나 떨어져 있으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땀일까 싶어서 치워준 것이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이 소년을 채용한 것이다. 이 소년이 출판업자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미국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되었다. 편 하나만 주워도 그렇다. 나도 어려워서 열흘을 굶은 적이 있다.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열흘을 굶었다. 천국에 나를 받아주시려나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더라. (웃음) 그런데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있다. 지속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

결론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진도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청년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바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디모데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교회가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란다. 교회의 역사가 있는 한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피아노를 나향민 권사님이 헌물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했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도 헌신했다. 그것만은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이 되시기 바란다. 진도자의 마음을 알고, 진도자의 마음에 담기는 진도자가 되시기 바란다. ‘아들아’ 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도자가 볼 때 ‘아들아’ 하는 마음이 품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일어나기를 바란다. 나는 30여 년을 봉사했는데 제자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한다. 내가 제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나는 류목사님보다 8년 연상이다. 그런데도, 복음운동을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고 섬긴다. 우리 젊은이들은 생각을 조금만 더 깊이 하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모든 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차세대 지도자들이 여러분 중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헌신하는 날에 종을 초창했습니다. 한 마디라도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저들 가슴에 살아 역사하게 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미래에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앞날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